

#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11.2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## ○ EU 2025년도 예산 잠재적 합의 ... 호라이즌 유럽 삭감 회피(11.19)

-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2025년 EU 연간 예산 1,994억 유로에 합의
- 호라이즌 유럽에는 128억 유로가 배정, '24년도 129억 유로 대비 감소한 수치이나 유럽의회는 EU 이사회의 4억 유로 삭감 제안을 막고 2,500만 유로를 추가 확보하는 등 비교적 좋은 협상 결과라고 평가
- ※ HE의 경우 '24년도 예산 발표 이후 전체 장기 예산이 21억 유로가 삭감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

## ○ 기술주권·안보·민주주의 담당 신임 집행위원, EU 양자법 제안(11.14)

- 핀란드의 헨나 비르쿠넨(Virkkunen) 집행위원은 유럽 내 분산된 양자 연구 통합을 위한 '양자법(Quantum Act)'이 양자기술의 어떤 측면을 강화할지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, 후에 청문회에서 '양자 칩법'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특히, 양자 컴퓨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
- 비르쿠넨은 임기 동안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타트업의 슈퍼 컴퓨팅 접근을 우선 과제로 삼고, 디지털 법률 시행을 시급히 다룰 계획

## ○ EU 첨단소재 기술 위원회 창립 회의 개최(11.15)

- 개막 회의에는 회원국 대표 27명, 연구 및 기술 조직, 산업 및 협회의 19명 등 52명의 고위 대표가 참석
- ※ DG RTD 총국장 및 국장, DG GROW 국장, EU 이사회 의장국 대표가 공동 의장으로 참석,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대표도 참관인으로 참석
- 기술 위원회는 다양한 회원국, 유럽 학계, 산업 및 협회의 고위 대표를 모아 유럽의 첨단소재를 위한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
- 위원회는 1년에 1~2회 회의를 갖고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

## ○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 주요 지표 현황(11.19)

- 기관 유형별 연구비 점유율: 대학(35%), 기업(28%), 공공연구기관(27%) 등
- 분야별(유로): 자연과학(232억), 공학/기술(151억), 사회과학(128억), 의학(82억) 등
- 국가별: 독일(17%), 프랑스(12%), 이탈리아(9%), 네덜란드(9%), 벨기에(7%), 룩셈부르크(0.5%) 등 EU 창립 국가가 연구비의 절반 이상 획득

## ○ (기타) ▲EU 집행위 과학자문기구(SAM), One Health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 발표(11.15) ▲집행위, 유럽 대학과 기업 간 협력 평가 보고서 발간(11.12)